

잡지 불황 속 일본식 분책백과 창간 붐

독자들의 욕구와 출판사의 전략 맞아 떨어져

백원근 | 한국출판연구소 선임연구원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의 잡지왕국인 일본의 2001년도 잡지시장 규모는 무려 13조 8천억 원이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전년대비 3.3% 감소한 것이며, 잡지 매출액의 4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 및 10년 전 매출액 수준으로 후퇴한 것을 의미한다. 출판시장을 견인해온 잡지의 영향력은 1972년 이래 '잡고서저'(雜高書低) 현상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지난해는 특히 사상 유례 없이 폐간지(170종)가 창간지(167종)보다 많았던 최악의 한 해였다.

불황 속에도 분책백과는 성장세 이어와

우리와 달리 유력잡지의 대부분을 출판사가 발행하는 일본 출판계의 현실을 감안하면, 이는 통계 이상의 위기상황을 의미한다. 이 같은 경기 침체와 소비 격감에 따른 잡지의 침체상을 만회하기 위해 일본 출판계는 출판계 '미니 백과'라 할 분책백과(分冊百科: Part Work) 붐을 조성하고 있다.

올해 들어 이미 창간됐거나 상반기 창간이 예정된 주요 분책백과 리스트를 봐도 이런 현상이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이 분야 최대 출판사인 데아고스티니(DeAGOSTINI)재팬은 올해 들어서만도 《비주얼 겐지이야기》《Speak ENGLISH》《NEW PC Success》《STAR WARS FACT FILE》(영화 <스타워즈>의 가이드북), 초등학생 대상의 과학백과인 《그렇군!》등을 이미 창간했고, 쇼각칸은 《일본의 미를 찾아서》《일본의 천연기념물 동물편》을, 고단샤는 《일

파트워크 출판은 독자의 잠재된 관심사와 컬렉션 욕구를 끌어내는 것이 최대의 관건이다. 사진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을 지역별로 엮어 매주 발행하는 고단샤의 《주간 세계유산》 최신호.

본의 가도(街道)》를, 아사히신문사는 《속 일본의 명산》 및 《일본의 역사 신정증보판》을, 세계문화사는 《일본의 고전을 본다》등을 창간했거나 준비중이다.

창간 러시의 이유로는, 기존 선발지들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시류를 그다지 타지 않는 데다, 단일 주제를 다뤄 판매부수 체감률을 파악하기 쉬워 특정 분야 콘텐츠에 자신있는 출판사라면 창간이 용이하다는 점이 꼽힌다. 독자 입장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세분화된 지식정보를 좋아하는 것만 고를 수 있고, 내용에 비해 단가가 저렴하고 부피가 얇아 휴대하기 좋으며, 완결 호수가 정해져 있어 관심 분야라면 정기구독료 예산도 미리 설정할 수가 있어 편리하다.

이런 장점 덕분에 분책백과는 심각한 구조 불황 속에서도 지난 5년간 40% 이상의 시장 성장률을 구가해 시장규모도 2천억원대를 상회한다. 분책백과는 대개 50호 또는 100호 발행되는 시한제 정기간행물(주간/격주간/무크) 형태로, 전체를 모으면 특정 분야의 백과사전이 만들어지는 출판 방식이다. 미술이나 역사 등의 고전적 장르와 실용·교육 분야는 물론, 자동차 미니어처나 보석 등에 이르기까지 포괄 범위도 점차 확대 일로다. 이들 백과는 부록만 모아도 훌륭한 컬렉션이 된다.

정확한 수요예측, 비용절감 등에 힘써

이 분야의 시장구도는 최근까지도 아사히신문(1971년), 데아고스티니재팬(1988년), 고단샤(1992년) 등 3각체제로 이어져왔으나 제작년부터 신규 진입사가 늘고 있다. 데아고스티니재팬의 《클래식 컬렉션》(1994년 창간)이 최초의 성공모델로 부상한 이래 작년까지

18종으로 증가하면서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클래식 컬렉션》 창간호는 CD부록을 끼워 290엔이라는 초저가로 무려 180만부나 팔려 세간을 놀라게 했다. 근년 발행된 창간호의 대부분은 20~60만부대를 돌파했다.

국내에서도 미니 백과 형식의 시리즈 도서가 번역서를 중

심으로 발행되고 있고, 지난 1월에는 재도약을 꾀하는 계몽사가 데아고스티니사와 향후 국내 번역물(또는 국내 개발물의 유럽시장도 입 진출권)에 대한 독점적 판권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전세계 파트워크 출판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는 데아고스티니는 1959년에 세계 최초로 백과사전을 분책해 발행한 이래 33개국(14개 언어)에 진출해 연매출 18억 달러를 자랑하는 출판사인데, 계몽사는 올 상반기 중에 글로벌 베스트셀러인 <공룡> <인체탐험> 시리즈를 번역출판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중심의 파트워크 출판이 일본의 분책백과로 거듭나 성공을 거두고 있는 데는 불황기에 출판계나 독자의 요구가 맞아떨어진다는 것 이외에도 출판사들의 특별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방 제한판매나 별책호 등 독자의 수요를 파악한 후에 전국 판매를 시도한다거나, 부록을 활용한 독자의 컬렉션 욕구 자극, 판매부수 조절 및 정기구독에서의 비용절감 등이 그것이다. 틈새시장은 새로 만들어지는 영역뿐 아니라 기존 콘텐츠의 재가공 노력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일본의 분책백과는 실증하고 있다. ■